

화순군, 상수도 사업비 622억 투입...시설·시스템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위해 오래된 상수관 등 정비 정확한 검침 의한 요금 부과위해 검침원 교육도

화순군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도행정 추진에 힘쓰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낡고 오래된 상수관 등을 정비하고 정확한 검침에 의한 요금 부과 등을 추진한다.

군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사업비 622억 원을 투입해 화순 2단계, 동복지구, 북면지구 등 지방상수도 미급수 3개 구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상수관을 정비해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8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 정비, 블록 시스템 구축 공사를 한다. 48억 원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전에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비 256억 원을 투입, 40년 된 화순읍정수

장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한다. 군은 정확한 검침을 위해 2021년도 민간 검침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침원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후 시설과 첨단 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 확충하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고품격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장 '담양장터 몰' 개장

설맛이 전 구매고객 '대숲맑은 담양 쌀' 증정...전 품목 10% 할인행사도 병행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담양장터 몰'이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18일 담빛농업관(담양읍 면양정로 730) 1층에 지역 농특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담양장터 몰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담양장터 몰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장이며, 한과, 장류,

참기름, 전통주, 떡갈비, 죽모차 등 지역 47개 업체에서 생산된 3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한다. 개장을 기념해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설맛이 전 구매고객에게 전년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 500g을 증정한다. 담양장터 몰은 지난해 6월부터 담양장터 판매장 운영을 위해 지역 농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98%가 찬성에 관내 농식품가공업체가 담양장터 주주회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판매장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연계한 담양장터 홈페이지를 오는 2월까지 개설하고, 우수품목에 대해 ▲군수 품질인증제(조례 제정 및 인증표시 개발) ▲상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동영상 제작 ▲라이브 쇼핑 관측 ▲홈쇼핑 판매 등을 지원해 담양장터 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장터 몰은 담양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제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꾸준한 상품 개발과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고흥친화도시 그림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에 빛누리초 2학년 홍수형 학생 등 20점 선정

나주시가 고흥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세대 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청소년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노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 이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꿈과 도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지난 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으며 초·중·고교 부문별 총 55점의 응모작이 접수됐

다. 시는 최근 미술 전문가, 고흥친화도시 조성 관계자로 구성된 공모전 심사단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6점) 등 수상작 20점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빛누리초등학교 2학년 홍수형 학생의 '화가 할아버지'(작품명)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어린 나이에 불구 고흥친화도시 조성 가치에 부합하는 활기찬 노인의 이미지를 순수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능주고 3학년 김가영 학생의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 문평초 6학년 윤은나 학생의 '우리도 아직은 꽃', 라온초 3학년 박연우 학생의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이 각각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수상자들에게 부문별 상장과 소정의 나주시사랑상품권(총 115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어르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그림 속에 투영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세대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다음달 10일까지 접수

상하반기 30만원씩 총 60만원

곡성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심정상품권으로 지

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또는 입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수당을 받

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농어업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출산가정 지원 '확 늘었네'

출산가정 양육비 120~1000만원 차등 지급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설

엘로우시티 장성이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새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먼저, 장성군에 주소 둔 출산가정에는 군 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42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 기존의 신청서 양육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다둥이가정 육아용

품 구입비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 둔 셋째아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지원된다. 난임부부를 위한 맞춤형 사업도 눈길을 끈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20~15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연간 2회 지원하는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 기존의 정부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에 1년 이



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도 올해부터는 남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4개월분의 한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새해 장성군이 추진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61-390-8363-4)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